

권력순환적 접근과 실용적 사회질서 구축

1. 권력프로세스와 가치화 프로세스

논의한바와 같이 가치화(valuation)는 지적인프라 프로세스의 의식적인 자각을 기반으로 한 판단의 문체에 관계되며, 이러한 가치화는 판단의 표준 즉, 가치를 형성하고, 이를 선택과정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Tool(1993)은 가치화는 "일반적으로 정당화된 지식(generally warranted knowledge)을 위한 연구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한다. 즉, 가치화는 연구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을 형성한다. Dewey(1986)에 의하면 가치 즉, 판단의 표준이 연구 프로세스 내에서나 연구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는 정당화되지 않거나 통제 불가능한 편견(bias)을 연구에 유발하여, 연구의 속성을 붕괴시킨다고 한다. 그는 가치화는 관련된 실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다.

Tool(1993)은 도구적(instrumental)이라는 용어는 수단-결과연결(means-consequences connections)을 의미한다고 한다.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질문은 아이디어, 원리, 구성 및 가정들이 목적하고 있는 결과(consequences as ends-in-view)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써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있다. 도구적 가치 판단(instrumental valuing)은 불확정한 상황(예로서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다 질서 있고 확정된

목적(a more ordered and determinate ends-in-view)으로 변환하는 수단으로 써 지식에 의존한 수단-기능 구성의 활용(the knowledge-guided use of tool-and-skill configuration)을 포함한다. 도구적 가치 판단은 판단 프로세스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연구에서 수단들이 선택되어지면 산출물은 결정되어진다. 산출물이나 결과는 다음 의 산출물을 위한 수단이다. 수단-결과연결의 연속체는 당연히 그 자체로서 지속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Dewey(1986)에 의하면 지식은 정당한 연구의 산출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지식이란 용어까지



한국산학경영학회 회장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이 경 환
032-860-7735



니고있는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어보다 연구에서 생성된 “정당한 주장(warranted assertions)”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정당한 주장은 다음 단계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는 연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한 연구에서도 달한 결론은 다음 연구 수행을 위한 수단이나 재료 또는 절차가 된다. 실용적 제도주의자들 에 의하면 지식은 “정당한 주장”으로 인식되는 문제 해결의 적절한 연구 상황 내에서 인지적 구조로부터 유도된다고 한다. (Tool, 1993)

Bush(1993)에 의하면 실용적 도구론자들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이론은 비확정적 상황을 통일된 전체(a unified whole)로 변환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연구에 적용될 이론은 생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실용적 도구론자들은 이론의 선택 근거는 안다는 것에서 안다는 것과 행하는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Tool(1993)에 의하면 도구적 가치 평가는 일관성(coherence), 상응성(correspondence), 적절성(appropriateness) 및 타당성을 위한 연구에서 고유한 것이라고 한다. 도구적 가치 이론은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연구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나 잠정적으로 유도된 진리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구분은 도구적 가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식되어진다고 한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 단계에서 가치화 의 도구적 방법 을 의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세스 자체에서 가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 한 바와 같이 권력 프로세스는 권력 결정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 원천을 창출한다. 권

력 결정 요소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 프로세스에서 가치 창출의 요소로서 작용하므로 권력 프로세스에 창출한 권력 원천은 권력 결정 요소들이 창출한 가치의 결합체이다. 예로서 앞에서 우리는 권력 프로세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권력 프로세스를 해서 생산한 제품이 서비스에는 권력 요소가 창출한 가치와 함께 고객의 욕구나 가치, 관계와 환경의 요구를 만족하는 가치가 결합되어 있다. 결합된 이러한 가치들은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한다. 권력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출된 이러한 권력 원천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이므로 권력 프로세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제공한다.

논의 한 바와 같이 권력 프로세스에서 권력 결정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은 권력의 속성에 지배된다. 권력 속성은 권력 행동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므로 권력의 다섯 속성은 권력 결정 요소의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 예로서 앞에서 우리는 권력 원천은 권력 결정 요소들이 결합한 가치의 결합체라고 논의하였다. 권력 프로세스에서 권력의 결합 속성이 작용할 경우 이는 권력 결정 요소들이 창출한 가치들 간의 수평적 결합을 유발한다. 이러한 수평적 결합은 권력 결정 요소들이 창출한 가치가 동일한 비중으로 권력 원천에 내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의 지배와 귀속 속성은 이러한 가치들 간의 수직적 결합을 요구한다. 가치들 간의 수직적 결합이라는 것은 권력 결정 요소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지배와 귀속 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비중으로 권력 원천에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프로세스에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새로우면서도 고유한 가치의 결합이 일어난

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권력 프로세스에 창출된 가치 유형이나 특성은 권력 결정요소를 창출하는 가치의 특성과 권력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권력의 속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권력 원천에 결합된 가치의 특성은 권력 원천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 특성의 차이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권력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는 권력 결정요소들이 창출한 가치 특성과 그에 작용한 가치 속성에 따라 이것들을 선호하는 고객에 차이가 있다.

Beck(1964)에 의하면 인지하는 사람의 의식이나 현상적 영역에 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흐름은 인간 자신이 나그나속한 세계와 그의 과거 및 미래에 관한 심리적 구성을 반영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인지 모형은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Furness 등(1998)에 의하면 인지(cognition)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을 알게 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지적인 프로세스에 관계한다고 한다.

Nairne(2006)은 인지는 생각의 모든 유형에 기반이 되는 활동에 관계된다고 한다. Warwick 등(2004)은 생각이 나추론 및 기억과 같은 지적 프로세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을 이해하게 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환경에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한다고 한다. 논의한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권력요소, 욕구, 가치, 관계 및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치화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생각이 나추론 및 기억과 같은 지적자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적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권력 원천을 창출하는 권력 결정요소들 즉, 권력요소, 욕구, 가치, 관계 및 환경은 하나의 복합체

(complex)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분리된 권력 결정요소들은 권력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체인 권력 원천이 되며, 이러한 원천은 권력요소들이 창출한 가치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권력 프로세스는 권력 결정요소들이 하나의 통일체로 들어가는 형이상학적 원리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권력 프로세스는 권력 프로세스 내에서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권력의 속성에 따라 이를 권력 원천에 결합함으로써 가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 프로세스는 가치화 프로세스이며, 권력 프로세스에 창출된 권력 원천은 가치의 결합체이다.

또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 프로세스는 누적적이다. 전 단계에서 창출된 권력 원천은 다음 단계에서 권력요소로 사용된다. 따라서 권력 프로세스의 누적성은 수단-도구 연결성을 포함하므로 연구의 계속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 프로세스의 창출된 가치 결합인 권력 원천은 도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 원천의 누적성은 도구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인 가치(terminal value)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권력 프로세스에서 관계는 궁극적으로 본질과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 순환적 접근은 도구적 가치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질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권력순환적 접근과 도구적 사회적 가치의 원리

Bush(1983)는 과학적연구를위한가치화프로세스는 도구적 가치화 프로세스라고한다. Tool(1993)에 의하면도구적 가치 원칙(instrumental value principle)은 네 가지 요소로구성된다고한다. 즉인간 생활의연속성(the continuity of human life), 공동체 의재 창조(the re-creation of community), 긍정적 변화의추구(the pursuit of non-invidious change) 및 지식의도구적사용으로구성된다. 그에의하면이러한네 가지 요소의동시적이며 상호의존적결합은사회적가치의도구적평가 기준을구성한다고한다. 제도주의자들용구적 가치이론은경제발전을위한핵심부문이되어야 한다고한다.

1) 인간 생활의 연속성과 권력순환적 접근

Tool(1993)에 의하면인간 경험의모든 것은 사회적 과정과함께 한다. 인간의역사는인간조직체와 인간이 창조하고유지하는문화의 진화적 변화의역사이다. 가치의전제로서연속성은이러한 사실에근거를두고있으며또한이것은명백한것이다. 즉인간 생활의연속성은사회적가치이론의창출과활용을포함한이 세상의모든 관심사(concerns)를 추구하기위한 전제조건이다. 인간의선택은사회적프로세스의경로를결정한다.

Ayres(1944)는 가치 원리의기원은경험에대한 이성적역사적적용에있으며이러한원리는기술적 연속체의창조에반영 된다고한다. 연속체, 즉 사람들간에 지식의누적적증가와확산은관찰가능한실체의인과적이해를위한연구에서도구와

아이디어의결합에의해서추구되어진다.

논의한바와 같이 권력프로세스는누적적프로세스이다. 왜냐하면이 전에창출된권력원천은이후의권력프로세스에서권력요소로서사용되기때문이다. 따라서권력프로세스에기초한연구는지식의누적적증가와확산을도모하게하여인간생활의 연속성에기여한다. 예로서앞에서우리는기술의 변화는발명이나아이디어를권력요소로한 권력프로세스에의존한다는것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기술변화프로세스에서발명이나아이디어는누적이거나또는 연속적인기술변화의방향을 규정하고이를 중심으로기술체제나패러다임이 형성된다. 뿐만아니라새로운과학적원리가권력요소로작용할경우 이는새로운기술체제나패러다임을형성하게한다.

권력프로세스는권력의결합또는 보존 속성에 따라권력특성을다른 권력에전달하는메커니즘을 가지고있다. 예로서권력결합은권력의결합속성에 따라권력요소와의결합을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요소들의특성은권력결합속성에의해서 다른권력이나새롭게형성되는권력에권력의결합의 형태로나타난다. 권력의보존 속성은권력프로세스를통해서권력의고유한특성을생성하여 보존하게하거나다음의권력에전달하게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볼 때 권력의결합및 보존속성은 권력프로세스의누적성과함께인간생활의연속성에기여한다는것을알수가있다.

2) 공동체의 재창조와 권력순환적 접근

Tool(1993)에 의하면도구적가치원칙은사람들이 문화를형성하고다른 사람들과공동체를형성하여산다는것을오랫동안증명된것으로인식한다고 한다. 사람들은본질적으로사회적동물이

다. 인간은공동체를형성하여살기때문에공동사회의문화적연속성은모든측면에서우선적인관심사항이다. 제도는공동체의조화로움삶에관련된행동이나태도를규정하거나금지하는패턴이다. 제도는사회의규범, 규칙, 법률또는관습으로서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을규정한다. 제도가실질소득의질이나적절한흐름을제공하지못한다고인식될경우 공동체의연속성이나특성은위협을받게된다. 이러한문제의해결안은불공정의원천으로인식되는제도적구조를개조하는것을포함한다. 지속적인업은 제도적 조정(institutional adjustment)을 통한 공동체의재창조이다.

논의한바와 같이 권력순환적접근은사회속에서의도적이거나목적지향적인권력순환을유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및 기술과같은모든사회분야에서새로운가치나권력원천을창출하고이를통해사회혁신을도모하여새로운생존질서를창출하는수단이다. 뿐만아니라논의한바와같이권력순환은기술, 제도, 문화와같은인간삶의모든분야에서지속적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하여의도적인또는목적지향적인변화를도모하는프로세스이다. 이러한현상에서볼 때 공동체에 대한권력순환적접근은제도적조정을통한공동체의 재창조를포함하고있다는것을알 수가 있다.

3) 긍정적인 변화의 추구하고 권력순환적 접근

Foster(1981)는 제도를관련된행동의사회적으로 규정화된패턴(a set of socially prescribed patterns of correlated behavior)으로정의하고제도내에서 행동 패턴은 형식적으로정당화되거나(ceremonially warranted) 또는도구적으로정당화

(instrumentally warranted)된다고한다. 행동패턴의 정당성은행동에관련된가치화의유형에의존한다고한다. 가치의유형이형식적일경우관련된행동에적용되는판단의기준이되는가치는사회공동체의공통적인관행에의해서습관화되어진것이다. 이러한공통적인관행은탐구범위를지나서문화적으로주어진것으로간주되고있다. 만약가치화의유형이도구적일경우 관련 행동을위한판단의기준으로적용되는가치는그것의결과에의해서타당성이인식되어야하며, 이는공동체의기술적프로세스의적용을통해서지속적으로면밀한검증을거쳐야한다.

Bush(1986)에 의하면 제도적구조변동의형식적 및 도구적패턴의집합으로정의된다고한다. 그에의하면사회적문제는다도구적으로정당화된 지식이공동체삶의프로세스에 긍정적으로적용되지않을 때 유발된다고한다. 따라서발전적인제도적변화는도구적으로정당화된행동패턴이형식적으로정당화된 행동패턴을대체할때 일어나며, 이러한변화는공동체의가치구조에변화를유발한다고한다.

논의한것처럼권력순환은권력의생성, 성장(확산), 안정및 소멸을포함하는동적프로세스이며, 이러한권력순환은권력프로세스에권력의다섯속성에능률적또는동시다발적작용에의존한다. 예로서권력의형성은권력의창조속성이권력의프로세스에작용할때 일어난다. 권력의성장이나확산은권력의결합에의존하는데이러한권력결합은권력의결합또는지배와귀속속성에의존한다. 앞에서우리는발전적제도변화는도구적으로정당화된행동이형식적으로정당화된행동을대체한다는것을논의하였다.

도구적 행동패턴에의한 형식적 행동패턴의대



체는 도구적 가치가 성장 또는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가치나 형식적 가치는 모두 권력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장이나 확산은 권력 결합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권력 순환적 접근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4) 지식의 도구적 사용과 권력 순환적 접근

도구적 가치화 원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설계와 실행에서 인과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지식의 사려 깊은 반영은 제도적 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구적 사용이란 이전의 연구에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산출물(products)에 의존을 의미한다. 도구 지향적 연구자들은 과거의 제도적 경험에 의한 정당화된 지식을 평가하고 사용하는 것에 몰입한다. 이들은 제도적 조정을 통한 선택안을 창안하고 검증하여 프로그램 통제 위한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Tool, 1993)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 프로세스는 권력 원천의 창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권력 주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다. 권력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출된 권력 원천은 권력 요소의 특성에 따라 여러 분야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된다. 예로서, 권력 프로세스의 권력 요소가 정치적 제도의 경우 이러한 권력 프로세스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로 된다.

기업에서는 지식이나 기술을 권력 요소로 해서 고객의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 프로세스는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프로세스이다. 권력 요소가 문화의 경우 이러한 권력 프로세스는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 프로세스는 권력 요소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 기술적인 국면과 같은 모든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권력 프로세스는 도구적 가치화 프로세스일 뿐만 아니라 누적적 프로세스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권력 프로세스와 도구적 가치 특성과 누적성은 권력 프로세스와 의존한 문제 해결은 이전의 연구에서 증명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산출물인 권력 결합체의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 기술, 지식과 같은 다양한 권력 요소나 권력 원천도 권력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출됨으로 권력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권력 요소나 권력 원천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권력 순환적 접근은 도구적 가치화 원칙에 서구정하고 있는 지식의 도구적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권력 순환적 접근과 실용적 사회 개혁

Bush(1989)에 의하면 도구적 가치 원칙의 공식화(formulation)는 제도적 변화 이론과 정책 형성 이론 간에 지적인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제도적 변화가 지식의 도구적 사용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연속성과 공동체의 긍정적인 재 창조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발전(progressive)을 의미한다고 한다.

Tool(1993)에 의하면 도구적 가치 원리는 연구자로 하여금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 분석에 대한 접근에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고 한다. 실용적 제도주의자들의 의하면 도구적 가치의 원칙은 문제를 어

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떠한 유형의 증거를 추구할 것인가. 분석을 위해 이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제도적 조정이 해결안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제안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도구적 가치 원칙은 경제 개혁을 위한 새롭고도 방어 가능한 수단을 제시한다고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권력 순환적 접근은 사회 속에 의도적이거나 목적 지향적인 권력 순환을 유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과 같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나 권력 원천을 창출하

고,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도모하여 새로운 생존 질서를 창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 순환적 접근은 논의한 바와 같이 실용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도구적 가치화 프로세스 및 도구적, 사회적 가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 순환적 접근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측면과 같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실용적 사회 질서 구축을 통해 순기능적 개혁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술 표준 2007. 6

